

젊음과 당당함을 앞세워, 국제개발 리더의 꿈을 품다.

이름 : 조근배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농업식량기구 로마본부 수토지자원부서(Land and Water division) 세계농업감독팀(World Agriculture Watch team)

직위 : 인턴

지원 경로 : 농수산식품부 OASIS 프로그램 제 1기

근무 기간 : 2018.05.02 - 2019.04.01

들어가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내가 국제기구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과 정보들을 한참 찾아 헤매고 있던 때, 한국인 출신 국제기구 직원들이 공통으로 조언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면, 대학교 입학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꾸준한 노력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는 ‘10년’이라는 압박적인 기간도 그렇거니와, 석사학위 및 다년간의 전문경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JPO나 YPP에 대한 정보 정도만 겨우 얻을 수 있었던 당시의 제한적인 상황이 압도적이기만 했었다. 때문에 국제기구는 나에게 너무나도 이루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이고 희미한 꿈 정도로 남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정부는 외교부 지구청년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부생도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볼 기회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2019년 지금은 가히 국제기구를 꿈꾸는 나와 같은 청년들에겐 ‘정보와 기회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수기는 젊은 학부생으로서의 내가, 나와 같은 꿈을 꾸는 내 또래 청년들에게 최근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과 당당함을 활용해 국제기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작성하였다. 또한 1년간의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단순히 국제기구 직원이 아닌, 국제개발 리더로서의 꿈을 품게 된 과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제기구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수기를 시작한다.

국제농업정책 분야의 젊은 인턴 제너럴리스트가 되기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약 10년간 국제기구를 꿈꾸는 과정에서, 나는 특정 사안(교육, 안보, 에너지와 같은 상위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다. 나에게 있어 우선시 되었던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효과적으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즉 ‘제너럴리스트’로 통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다. 때마침 내가 대학교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된 해에 파리협약이 체

결되고, 국제개발 담론이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큰 틀 아래 놓였고, 나는 기후변화대응의 양대 축인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와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 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에너지와 농업 두 분야에 대한 나의 애정은 동등하고, 또 최근 범분야(Cross-cutting) 프로젝트들의 경우 태양광발전 혹은 풍력발전과 농업을 연계시키는 등 양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개발모델들이 많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편으로, 두 분야에서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상이한 접근 방식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정된 공공재원을 레버리지해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하고 이를 전력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목적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는(적어도 내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최종 수혜대상인 농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개입이 수반되는 그 성격상 최종 수혜자들에게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고려, 이들이 처한 특수한 맥락에 부합하는 정교한 접근방법을 요했던 것이 특히 흥미로웠고, 식량농업기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농업과 식량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그 유명한 필수 요소인 ‘의, 식, 주’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로부터는 안타깝게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아니, 가까운 아시아 대륙의 개발도상국들만 보더라도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촌은 청년과 노인 구분 할 것 없이 국민 대다수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아래 관련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내 농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다.

당당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국제기구에서의 업무

내가 속했던 세계농업감독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큰 담론 아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21개국을 대상으로 1)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투자를 유치하고 2) 소규모 가족 농가의 고질적인 한계점(자본 활용 및 투자 유치의 한계, 정보 접근성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 아래 고안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수혜국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첫 번째는 통합화된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 내의 기존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역량배양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수혜국이 국가 관측 시스템을 설립하고 농가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농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역량 배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농가유형을 주제로 한 글로벌 리포트 발간과 웹 플랫폼 설립을 통해 각 개도국에서 얻은 지식을 전파하고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과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 팀에서 내가 주로 맡게 된 역할은 기초 아이디어와 과거 파일럿 프로젝트로부터 남아있는 WAW 프로그램에 뼈와 살을 덧붙여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출범시키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A. 프로젝트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서 Aa. 이해관계자 조율 그리고 Ab. 자금조달 촉진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A. 하얀 도화지에 프로젝트를 그려내다 - 프로젝트 구축업무

어릴 적부터 나는 無의 공간을 내 상상력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는 일을 즐겨왔다. 유년시절, 내 팔다리를 양옆으로 활짝 펴도 한참 그 크기에 모자랐던 어머니의 거대한 퀸사이즈 이불을 배경삼아 레고 인형들을 여기저기 늘어뜨려 놓으며 한 편의 영화를 찍었는가 하면, 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매번 숙제로 내주는 문장 일기가 쓰기 싫다는 핑계로 여백으로 가득한 공책 위에 조금의 피와 함께 상상력을 짜내어 시를 써서 일기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컨설팅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나는 한때 놀이나 피를 위한 수단이 되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련의 행위를 ‘논리적 구조화’라는 이름으로 프로페셔널 세계에서 업무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로에서 시작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기까지의 논리 구축을 도우며, 아무것도 없는 기초부터 논리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에는 나름의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FAO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막상 첫 업무를 받아보고 나서 내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다름 아닌 ‘아뿔싸’,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착각했고, 21개 국가에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대한 계획에 비해 업무 역량적으로 부족한 나였기에, 내게 프로젝트 개발 업무는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그리는 것만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다행스럽게도 그 압박감이란 것이, 두려운 압박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던, 긍정적인 압박감이 아니었나 싶다.

누구에게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그리고 왜 제공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솔루션의 정체성이라 하면, 우리 팀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1) 누구에게 도움을 2)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3) 왜 제공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에 더해 매일 새로 제안되는 프로젝트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하고, 운영자금을 따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참신성, 이행 타당성, 그리고 원조 효과성 및 비용 효율성을 포함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Aa. 본부와 개도국 현장의 온도차를 느끼다 - 이해관계자 조율 업무

국제기구에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8할이라고 할 정도로 수원국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유럽에 있는 식량농업기구 본부의 위치적 특성상 수원국 이해관계자들과 면대 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프로젝트 구축이란 것이 적시에 탄력곡선을 타지 못하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FAO 로마 본부에서의 생활이 5개월 차에 접어들고 겨우 이곳 현지에 적응해갈 때쯤이었을까, 나는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에 2주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인턴 신분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마침 우리 팀에서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급한 용무가 생기고, 연말까지 소진해야 하는 출장자금이 남아 있었던 덕분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내가 파견된 것이다. 유럽에서 일하게 된 것도 가슴 벅찬 일인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개발현장에 직접 가게 되다니! 솔직히 말해 출장파견이 확정되고 나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해결 안건보다는, 해외근무 중 다시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에 벅차올라 며칠 밤을 지새웠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나는 다시 한 번 아시아 땅을 밟게 되었고, 그 설렘도 잠시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산을 넘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정부부처 과장급 회의부터 농민단체 회의까지

아시아 땅을 밟게 된 출장 1일차부터 나는 홀로 수많은 회의들로 파견되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돌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수산식품부의 특정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무관급의 직원들과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했다. 팀장님 없이 혼자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압도했지만, 지난 5개월간 밤을 새가며 업무 관련 이슈를 공부해왔던 나였기에 당당하게 현재 우리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나는 학부생 1학년시절,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제 1위 주류업체의 해외사업팀과의 회의를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회의에 대한 괜한 부담감이 나를 압도할 때면, 그 당시의 기억과 패기를 떠올리며 당당히 회의를 진행했고, 각 정부부처별로 약 2~3일간의 릴레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 학부생 시절 때의 작은 경험 하나하나도 결국 내게 피와 살이 됨을 다시 한 번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 각국 정부들과의 회의 이후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인 국가 연구기관과 농민 단체에서 또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농민단체와 겨우 하루정도 회의를 했을 뿐인데도 해당 국가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국가와 시민단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Ab.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 자금조달 촉진 업무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이 완료된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 다른 아닌 돈, 프로젝트 운영자금이다. 그 어떤 참신하고 잘 구조화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운영자금을 대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무제한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맡은 주요 직무는 프로그램의 펀딩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우리 팀이 FAO내의 재원동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FAO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FAO 외부의 글로벌 도너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도너가 제시하는 제안서 혹은 컨셉 노트를 몇 번이고 단기간에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금을 구하는 처지에서는 손발이 빨라야 한다.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구체화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정체성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해 내가 얻게 된 첫 번째 자산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전문영역(Specialization)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국제기구의 진로를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제너럴리스트의 특성을 다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제기구 프로젝트 개발현장에서 바라본 각양각색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보면 각자가 표방하는 전문성과 강점들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나의 주요 관심분야인 자금조달(Resource mobilization)의 경우, 기구 차원과 프로젝트 차원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업무가 요구하는 업무 스코프와 역량이 매우 다르다. 또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도 다수의 제너럴리스트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나는 1년간 국제기구에서 프로젝트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농업(및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 레벨 자금조달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렇듯 같은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던 나는 구체화된 전문분야 목표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향후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농업 및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개발의 수요가 있는 국제기구와 개발은행 중 내가 담당해왔던 제안서 작성 및 이해관계자 조율, 자금조달의 전문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곳에서 첫 직장을 가지기로 진로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국제개발 리더로서의 꿈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해 내가 얻게 된 두 번째 자산은 국제리더로서의 꿈을 품게 된 것이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나에게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일 뿐임을 깨닫고, 세계적인 국제개발 리더로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게 된 계기

는 인턴십 기간 동안 운이 좋게도 우리 팀이 속한 전략프로그램¹의 팀장급 회의에 자주 참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회의에 참여 할 때마다 매번 느꼈던 점은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기구에서도 유난히 빛이 나는 사람들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 농업협력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경력 + 재치 있는 수사까지 겸비한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좌중의 마음을 휘어잡는 멋진 팀장들을 보며, 나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팀, 기구,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큰 야망을 품게 되었다.

나와 같은 또래 청년들과 선 후배들께 감히 외친다: 젊음을 활용하고 당당함을 앞세워 함께 리더의 꿈을 품자!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일을 통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흔히 우리가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학부생 시절에 경험한 인턴을 포함한 여타 활동은 제외하고, 졸업 이후 정규직원으로서의 행보만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학부생으로서의 경험도, 본인이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 관심을 뒷받침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내가 유엔식량농업기구 인턴십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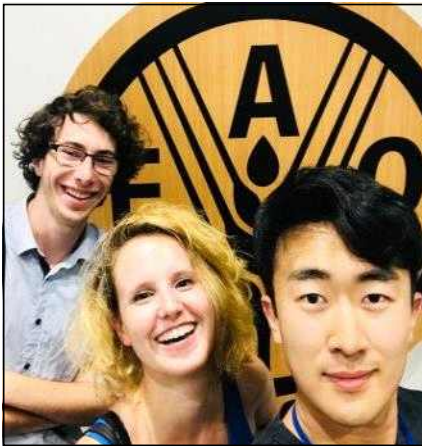
특히 ‘실무 역량 구축의 중요성’, ‘역량중심 면접’ 등 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깊이 있는 ‘진짜’ 역량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역량이란 것이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얻을 수 있는 지식적 역량이 있는가 하면, 직접 밖에 나와 몸으로 부딪히며 얻어야 하는 경험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깊이 있는 실무역량은, 실무를 해보는 것, 혹은 적어도 실무를 하는 사람 옆에서 어깨너머로 직접 두 눈으로 보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전문성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또 다시 수원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업무는 그 업의 특성상 국제기구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다. 나와 같은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고한다. 국제기구를 꿈꾼다면, 젊음과 당당함을 앞세워 한시라도 우리 정부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백배 활용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뽕뽕 싸매었던 꿈의 씨앗을 꺼내 받아시키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 도전하라! /끝/

¹ Strategic Programme; FAO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여러 성격의 팀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한 단위

별첨 - 사진 I (젊음과 열정을 중심으로 뭉친 전 세계의 국제 청년들)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근무하는 전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농업 혁신, 스타트업, 기술, 청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공유의 장이 되었던 농업정책 혁신세션에 참가했다. 왼쪽으로부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청년들 즉,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 팀의 첫 번째 동료들인 Alexis와 Zoe과 함께 - 우리 팀은 20대 청년비율이 절반을 넘어 생기 있는 업무환경을 자랑했다.



식량농업기구 청년 직원들을 선발해 진행했던 교육 훈련 세션이다.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동료들과 네트워킹하고, 기구 내 비 효율적인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토의 하였다.

별첨 - 사진 II (누구보다 당당했던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장의 경험)



캄보디아 농림부산하 천연고무 부서와 회의 - 혼자 회의를 이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것 같다.



캄보디아 농림부산하 천연고무 부서의 입구에서 - 회의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태국 방콕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방문 - 본부와 지역사무소 간의 활발한 협력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캄보디아 천연고무 연구기관과의 회의 - 연구원장님께서 캄보디아와 아시아의 고무산업 현황을 브리핑 해주셨다.

별첨 - 사진 III (다양한 문화와 전문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국제기구)



본부의 인턴 동료들과 함께한 한식문화교류 - 하루의 고된 일과를 끝내고 각국에서 파견된 인턴친구들을 한식당에 초대해 한식문화를 전파했다.



내가 만든 기구 내 서핑동호회 동료들과 함께 여름에는 서핑에 도전해 보았다.



세계농업감독 팀장이 주최하신 디너파티 - 로마 내/외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이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 팀에 중국에서 새로 온 인턴동료인 Rufan과 함께 먼 미래, 각 국가를 이끄는 리더가 되자고 다짐하고 미리 악수를 해보았다.